

제주도 민요와 여성 : 특히 '잠수(潛嫂)'의 생활과 관련하여

한 창 훈*

1. 왜, 제주 여성인가?
2. 잠수(=해녀)의 생활과 민요
3. 민요를 통해 본 제주 여성의 삶과 의식
4. 결 론

초 록

제주도의 잠수는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는 다른 일상의 유형을 띠고 생활한다. 잠수의 작업 즉 물질은 시간적으로 물때에 맞추어야만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잠수들은 농사를 짓다가 건조가 되면 바닷가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다시 만조가 되면 농사 일 혹은 가시일을 한다. 이처럼 잠수의 일은 혼자서는 하기 곤란한 힘겨운 노동이기 때문에, 자연히 동료들과의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민요도 이런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구연형태가 집단적이다. 물론 발농사를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경우에는, 상황이 이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독창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의 선입관과는 달리 제주 잠수의 생활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민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처럼 소위 '잠수 노래'에만 관심을 쏟아서는 곤란하다. 발농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를 포함해, '시집살이'나 아기를 돌보며 부르는 '자장가'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삶과 그 지향점을 읽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제주 잠수들이 부르는 민요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잠수 노래'와 '맷돌·방아

* 고려대 강사.

노래'다. 민요를 통해서 본 제주 잠수의 삶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상상하듯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이들은 물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험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직업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따라서 민요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삶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들에 형성화되는 제주 잠수의 모습이 근면하고 진취적이고 강인하다 하더라도, 그 의미의 실질은 구분되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여성들의 가슴에는 한이 매우 골 깊게 묻혀 있으므로, 그들의 민요 역시 어둡고 구슬픈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정신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다. 때문에 진취적이고 강인한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설움과 힘겨움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만 작용하게 된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주의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1. 왜, 제주 여성인가?

한반도 서남쪽 해안에 우뚝 솟아 있는 제주도는 일찍부터 돌·바람·여자가 많은 '삼다(三多)의 섬'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제주 여성이 돌·바람과 함께 제주도를 다른 지역과 구별시키는 특수한 존재로 여겨져 왔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해녀(海女)'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잠수(潛嫂)¹⁾'는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 여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잠수로 대표되는 제주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섬 전체의 정체성과 그 역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탈과 고통의 제주 잠수들의 역사는, 곧바로 중앙

1) 그 동안 많이 사용되어 온 '해녀'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이 일본어의 의미로 식민지 시대에 사용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잠녀(潛女)와 '잠수(潛嫂)'가 있는데, 전자를 한글로 발음할 경우에 발생하는 용어 혼동의 가능성(예를 들어 雜女라는 단어와의 혼동)을 피하고, 1966년 이래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의 행정 용어를 존중하여 여기서는 '잠수(潛嫂)'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이를 포함하여 지역학으로서의 제주 연구에서 발생하는 학술용어의 문제는 전경수, 「학술용어의 탈식민화」, 『한국문화론: 전통편』(일지사, 1994)을 참고할 것.

에서 이탈된 존재로서의 제주도가 가졌던 설움의 역사와 동κει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던 잠수들이,²⁾ 그들의 근면하고 강인한 생활상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은 제주 여성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필자는 강인한 생활인이었던 제주 잠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찬동하지 않으며, 이러한 긍정적 요소의 이미지화가 제주 잠수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는 등의 작용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실질적 내용이 동반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가는 역으로 이들을 초과 노동으로 내모는 담론이 될 수도 있으며, 제주 잠수가 제주 여성들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여성들에게는 부지런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제주도가 유명 관광지가 되면서 형성된, 젊은 여성을 모델로 성적 매력이 더 강조되는 제주 잠수의 상업주의적 이미지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자기 비하와 소외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³⁾

제주 잠수에 대한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의 현지 조사와 그 결과로 나온 논문들⁴⁾은 아직 여성주의(=페미니즘)적 시각이 인지조차 되

2) 가령 17세기에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던 이진은 『제주풍토기』에서, 남녀 유별을 강조하던 유교 사회에서 남녀가 같이 물질을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물소중이’라 불리는 잠수복만을 입고 물질을 하는 제주 잠수를 ‘친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 유배인들이 보여주는 제주에 대한 시각의 자세한 내용은 양순필, 『제주 유배문학연구』(제주문화, 1992)를 참고할 수 있다.

3) 제주 잠수들에 대한 내적·외적 이미지 형성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집(제주학회, 1998)을 참고할 수 있다.

4) 조혜정, 「제주 잠녀 사회의 성 체계화와 근대화」, 『한국 어촌의 저발전과 적응』(집문당, 1992) : 「발전과 저발전 :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화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지성사, 1988) : 「근대화에 따른 성 역할 구조의 변화 : 제주도 해녀 마을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5집(한국여성개발원, 1987) : 「제주도 해녀 사회 연구 : 성별 분업에 근거한 남녀 평등에 관하여」, 『한국인국

지 않았던 1970년대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여성의 사회 정치적 자립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함으로써, 단순한 인류학적인 연구를 넘어 제주 잠수에 관한 연구를 여성학, 또는 여성주의와 접목시키는 해안을 보여주었다. 이런 연구들에서, 성 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 잠수가 세간의 주목받게 된 것은 그들의 이른바 ‘여성적 가치관’ 때문인데, 그 가치관의 중심에는 ‘근면’과 ‘강인함’에 근거한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이처럼 제주 잠수로부터 긍정적인 한국의 여성상을 발견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제주 여성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학 및 여성주의에도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조혜정 교수의 연구 성과가 제주 잠수를 연구한 여러 글들에서 수용되고 재생산되면서, ‘근면한 여성의 신화화’가 제주 잠수들에게는 물론 제주 여성, 나아가 한국의 여성들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의하면, 제주 잠수들은 물질, 발일, 가사일 등을 거의 전담해야 하는, 권리와 자유보다는 의무와 책임에 놀려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한 현실이 그러하다.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 잠수의 상을 여성들에게 강요할 수 있고, 여성들도 권리보다 의무가 더 강조되는 ‘신화’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결국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연구된 결과가 무비판적으로 혹은 왜곡되게 재생산됨으로써, 오히려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결합되어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⁵⁾은, 역설을 넘어서 당혹감과 함께 하나의 충격으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국문화』(심설당, 1982).

5)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30집(한국사회학회, 1996.봄) 이후에 『제주사회론』 2(한울, 1998)에 재수록되었음. 필자는 이 논문을 처음 대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충격이 본 논문을 쓰게 하는 동기의 하나가 되었음을 밝혀 두며, 한번도 원적이 없지만 날카로운 학문적 비판의 선례를 보여준 권귀숙 선생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강한 여성으로 자신을 보는 제주 여성들은 한편으로 자신의 실제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신화적 이미지와 갈등을 겪게 된다. 강한 여성의 이미지 뒤편에 존재하는 ‘고생하는 여성’, ‘희생하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 제주 여성들의 의식은 모순을 겪게 되는데, 제주 잠수로 대표되는 여성들은 물질, 밭일, 가사일 등 현실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는 ‘속죄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저력을 가진 불국의 정신적 소유자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역사적으로 타자와의 권력 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탈에 대한 순응과 이에 대한 저항 정신 등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⁶⁾ 여성의 경우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제주 잠수 즉 제주 여성을 다시 문제삼는 입장에서, 우선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불러지는 민요에 나타난 의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에 자주 언급되던 문제를 다시 재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접근 방법도 기존의 것들과는 변별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인류학 혹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들에 의해 향유되는 ‘문학의 분석’은 그들의 의식을 어느 정도 ‘직접’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고 여긴다. 덧붙여 필자는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고찰을 통해, 제주 여성들의 의식과 그 문화적 성격의 일단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⁷⁾ 민요는 무가보다 더욱 화자들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학 갈래라는 점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6)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15집(제주학회, 1998).

7) 자세한 내용은 한창훈,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15집(제주학회, 1998)을 참고할 것.

2. '잠수(=해녀)'의 생활과 민요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지역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를 선택했다. 이 마을은 『동국여지승람』 등 옛 문헌에 이미 그 이름이 나오는 마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주민들이 아직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특히 잠수가 많은 마을이며, 농업과 어업에 관한 각종 민요가 많이 전승된다. 구비 문학을 중심으로 한 조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조사 보고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출판되기도 했다.⁸⁾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성격이 강한 제주도 해안 마을에서 제주 잠수는 물때에 맞추어 '물질'을 하며, 계절과 농번·농한기의 구분없이 어떤 다른 여성들보다 더 많은 농업 노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 속에서 특별한 장비도 없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며, 특히 입덧과 출산 전후에도 물질을 하는 강인함은 높이 평가되어 왔다. 현재 이러한 잠수가 존재하는 지역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잠수의 수가 감소하여 현재 수천에 불과하고, 한국의 잠수는 거의가 제주도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라 하면 한결같이 제주도 잠수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잠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오랜 연원⁹⁾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

8) 현용준·김영돈, 『한국 구비문학 대계』 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김녕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6집(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이 대표적이며, 기타 마을에서 발간한 향토지들도 참고가 된다. 필자는 원래 고향이 북제주군 조천읍이고 성장은 제주시에서 했는데, 여러 계기로 하여 1987년부터 1991년에 걸쳐 제주도 구비문학 조사를 다녔고, 김녕리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했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제주 지역이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구비문학 자료들이 소실되어 내심 만족할 만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9) 잠수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는지 현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 숙종 때(1105년) 남녀간의 나체 조업에 관한 금지령이 있

잠수의 노동이 가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 식민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1900년대 초부터 많은 제주인들이 일본의 노동 시장에 저임금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본 자본주의가 근대 공업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일본과 가까운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이끌어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⁰⁾ 이에 제주도에 남아 있는 여성 노동의 경제적 중요성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해안 마을의 잠수들은 물질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밭일도 전담하는 등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일본의 어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산물의 상품화는 가격 상승과 더불어 잠수들의 수입이 가정이나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였다.

김녕리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어서, 아직도 두 집에 한 집꼴로 있을 만큼 재일교포가 많은 마을이다. 또한 지금 수집되고 있는 민요를 포함한 구비 문학 자료도 이 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민중들의 생활 감정이 여과없이 스며들어 있는 민요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처음 창작 당시의 원형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보자들의 나이를 고려¹¹⁾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고찰 대상은 시기적으로 구체적 상한선을 일제시대로 잡을 수 있다.¹²⁾

었다는 점을 보아 고려 시대까지 그 시기를 소급해 볼 수 있다. 강대원, 『해녀 연구』(한진문화사, 1973)를 참고할 것.

10) 이영훈,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고려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11) 가령, 1988년 김녕리 조사 당시 제보자들의 나이가 6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현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70대가 된다. 이들은 10대를 전후해서 광복을 맞이 하였으니, 이들이 전수한 민요에 일제시대의 생활 경험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음은 오히려 당연하다.

12) 때문에,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으로서는 일제시대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다음의 자료들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高橋亨, 『濟州道の民謠』(日本:天理大學, 1968) 좌혜경 역, 『제주섬의 노래』(국학자료원, 1995)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수선사, 1949)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일조각,

따라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 잠수의 역사적 기원은, 제주의 마을들이 자본주의 경제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제주 잠수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변경에 위치했던 제주도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집단은 조직의 경험과 임노동의 경험을 지닌 일종의 직업 집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반적으로 제주 잠수에 대해 일반화된 인식은 비시간적이거나 전통의 사물이기 보다는, 근대의 산물로 간주되어야 한다.¹³⁾

제주도의 잠수는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는 다른 일상의 유형을 띠고 생활한다. 잠수의 작업 즉 물질은 시간적으로 물때에 맞추어야만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잠수들은 농사를 짓다가 간조가 되면 바닷가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다시 만조가 되면 농사일 혹은 가사일을 한다. 시각에 따라 선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주는 생태적으로 특히 토질과 장우탕에 있어 여성 노동 중심의 밭농사 위주로 생업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여기에 해변 지역에서의 잠수업이 첨가되어 제주는 명실공히 여성 노동력 위주의 생산 체계를 이루어 왔다”¹⁴⁾는 지적도 타당하고 적절하다. 잠수라는 말에서 물질만 떠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일상 생활은 매우 바쁘게 이루어지므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따른다. 잠수들은 아기를 돌보며 집에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기 보는 것은 시어머니, 남편, 장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잠수들은 잠수 작업장이나 밭에서 돌아오는 즉시 다시 아기를 맡아보며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취미나 문화 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 본다. 문화 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우선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¹⁵⁾

1965).

13) 권귀숙, 앞의 논문, 앞의 책, p.342.

14)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화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지성사, 1988), p.266.

15) 김은희, 『제주 잠수의 생활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고려대 교육대학원 석

해안가 소녀로서 해업을 배우면서 자택질에 익숙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0세 정도가 되면, 이들은 벗들과 함께 해업 경주를 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자신이 직접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제주 잠수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학비와 용돈을 비축한다. 직업인으로서 제주 잠수들이 단체로 물질을 하는 기간은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는 '잠수회(潛嫂會)'와 '어촌계(漁村契)'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구잡이로 물질을 하게 되면 소중한 해산물이 곧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작업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주 잠수들은 혼자 물질 나가는 일이 없고 반드시 공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였다. 한번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나면, '불턱'에 몰려와서 함께 불을 쬐다. 이렇게 잠수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만발하게 되고, 민요를 중심으로 한 노래의 잔치가 벌어지기도 한다.¹⁶⁾

이처럼 잠수의 일은 혼자서는 하기 곤란한 힘겨운 노동이기 때문에, 자연히 동료들과의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민요도 이런 상황에서 불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구연 형태가 집단적이다. 물론 발농시를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경우에는, 상황이 이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독창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선입관과는 달리 제주 잠수의 생활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민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논의처럼 소위 '잠수 노래'에만 관심을 쏟아서는 곤란하다. 발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를 포함해, '시집살이요'나 아기를 돌보며 부르는 '자장가'에서도 우리

사 논문, 1993) 참조. 이 연구는 주로 우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 생활 모습은 제주 지역 전체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半農半漁 지역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

16) 김영돈, 「제주 해녀 조사 연구」, 『민족문화연구』 24집(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 : 「제주 해녀의 민속학적 연구」, 『제주도연구』 3집(제주도연구회, 1986) : 김영돈·김범국·서경림, 「해녀 조사 연구」, 『탐라문화』 5집(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6).

는 그들의 삶과 그 지향점을 읽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3. 민요를 통해 본 제주 여성의 삶과 의식

제주 잠수들이 부르는 민요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잠수 노래’와 ‘맷돌·방아 노래’다. 민요는 반드시 口演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전해지는 민요는 오랜 세월 전통적인 가락에 맞추어 민중들의 여러 입을 거치면서 이룩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현재 우리가 수집하고 정리하는 민요의 정확한 소종래는 알 수가 없으며, 사실에는 주로 일제시대 이후 제주 잠수들의 삶의 경험과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헌 기록으로 제주도 민요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 때 이제현의 『익제난고』인데, 「망북풍선자(望北風船子)」와 「수정사」 두 곡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책에서 일반적으로 “방언이 어렵고 맷돌소리가 심히 괴롭다.”라고 하고 있다. 특히 인조 때의 유배인 동계(桐溪) 정온(鄭蘊)은 섬의 여자가 지은 방아 노래를 듣고서, “밤부터 새벽까지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쪼으면서 부르는 구슬픈 노래가 나그네를 슬프게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노래의 사실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곡조의 언급을 고려하면 제주 민요에 담긴 내용은 슬픈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¹⁷⁾

제주 여성들은 너무도 많은 질곡과 고난 속을 살아 왔는데, 이것이 수 많은恨이 담긴 노래를 만들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 제주도 민요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한풀이라고 할 수 있다.

1) 잠수 노래

원래 잠수 노래는 주로 잠수들이 바다를 오고 가면서 타는 배의 노를

17) 좌혜경,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백록어문』 13집(백록어문학회, 1997), p.35.

저으면서 부르는데, 현재 구체적인 사실이 전해지는 것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이 노래는 노를 짓는 동작과 밀착되어 구연됨으로써 노동 작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뚜렷한 기능요의 성격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김대행은 제주 민요에 대한 노래의 인식을 화자들의 의식을 통해서 추출한 바 있다. 곧 작업의 조율을 위한 기능으로서 ‘노동 촉진의 효과’, ‘정신적 분발의 효과’, ‘질서 부여의 효과’가 있으며, 심리 상태의 언어 전환의 효과로서는, ‘갈등의 표출’, ‘대리 성취’, 갈등의 억압과 은폐, ‘언어적 반동’ 등으로 살폈다.¹⁸⁾

그러나 실제 화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노래를 한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민요, 그 중에서도 기능요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구연의 상황, 리듬감 등 언어 음악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주로 사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요 넬 젓엉 어덜 가리
진도 바당 혼 끌로 가면
흔착 손에 테왁을 쥐곡
흔착 손에 빗창을 쥐곡
흔 질 두 질 들어간 보난
저승길이 분맹하다¹⁹⁾

화자는 지금 노를 저으며, 진도 앞바다로 간다. 한 손에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데 쓰는 도구인 ‘빗창’을 쥐고, 또 다른 손에는 채취한 해산물

18)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 인식」, 『제주도 언어 민속 논총』 (제주문화, 1992)

19) 여기 제시되는 작품 자료는 1988년 7월 29일 김녕리에서 조사한 것이다. 당시 제주대학교 음악과 학생들과 같이 조사한 기억이 난다. 음악과 학생들은 사설보다는 음악성을 더 중시하면서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 녹취 자료를 전사하는데 애를 먹었다. 따라서 자세히 알아 들을 수 없는 불명확한 부분들은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당시 제보자는 김경성(여·59세), 김순녀(여·63세) 할머니 두 분이였다. 이하 잠수 노래는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을 보관하는 ‘테왁’을 쥐었다. 이들은 머나 먼 진도 바다까지 가서 물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은 일터라기보다는 ‘저승길’로 표현되는 두렵고 가기 싫은 곳이다. 두렵고 가기 싫은 곳에 가야만 하는 운명, 이를 숙명이라 여긴다면 그들의 의식은 진취적이고 강인하기보다는 체념적이고 순응적이라 할 수 있다.

요 네 상착 끊어 절덜
가시 낭귀 엇일소냐
요네 벤드레 끊어 진덜
부산 항구 엇일손가
우리 어멍 날 날적에
가시 남의 몽고지에
손에 켜이 박으라고 날 낳던가

‘상착’은 배를 저울 때 쓰는 노를 가리키고, ‘엇일소냐’는 없을쏘나라는 뜻이다. 지금 배를 짓고 있는 노가 끊어지더라도 다시 가서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벤드레’는 배를 가리키니, 타고 있는 배가 끊어지더라도 부산 항구에 있는 배를 통해 다시 바다로 나오겠다는 의미가 이어진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만하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의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한탄한다. 즉,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몽고지’는 노의 손잡이를 가리키고, 이처럼 노를 많이 저어 손에 굳은 못이 박힐 정도로 힘겨운 노동에 휘말리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힘겨운 작업을 하는가?

버나 굶으나 이 물질을 호양
정든 님 주젠 엇 사다 놓니
동풍에 다 녹아 간다

남은 가고 봄은 오니
몸만 희어 인생은 간다

잠수 노래는 제주도 거의 전지역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각 지역의 전승 형태는 당연하게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떤 지역의 민요 사설에서도 제주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한다는 언급은 없다. 주로 가족을 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처럼 그 대상이 남으로 표상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점은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그나마 남도 자기 곁에 오래 있지 못하니, 외로움 속에서 시간만 흘러 가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다중의 피해자였던 제주 잠수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며 그 고통이 증가하게 된다. 이미 발농사 중심의 농업에서도 남성 못지않게 여성이 차지하는 노동력의 영역이 큰 데다가, 일제시대 젊은 남성들의 도일로, 이어 광복후 4:3의 영향으로 가정의 생계를 거의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부양의 책임을 진 여성들이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환금성 높은 해산물 채취를 위해 '저승길' 같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들이 제주 잠수이며, 그들 삶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 민요인 잠수 노래다.

2) 멧돌·방아 노래

아직까지 제주도 민요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제주도에 민요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많은 민요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노동요는 절과 양 양면에서 단연 압권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멧돌·방아 노래가 주목된다. 이처럼 제주 잠수들의 노동요 풍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질이 없을 때, 이들은 쉬지 못하고 밭일에 시달리기 마련이었는데, 노동요를 통해 노동의 고역과 단조로움을 작으나마 피하고 노동의 능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맨손으로 척박한

자연 환경을 이겨내야 했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억척스런 삶을 살면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노동요로 표현했다.

노동요의 사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노동과 관련된 사설이고, 또 하나는 노동과는 관계없이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설이다. 가령, ‘타작 노래’처럼 일이 거칠고 여러 사람의 행동 통일이 필요한 작업을 하며 부르는 사설은 노동과 밀착되어 주로 노동하는 실태를 노래한다. 맷돌·방아 노래처럼 일이 거칠지 않고 한 둘만이 단조롭게 일함으로써 행동 통일이 필요치 않은 작업에 따르는 민요의 사설은, 노동과 밀착되지 않은 채로 거의가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표현한다.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설이 오히려 가다듬어지고 빼어나다는 것²⁰⁾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여 ㄱ레 고들배 굴앙
 츠녜이나 붉은제 흐라
 ㄱ레도사 지남석 ㄱ레
 굴아 가도 지남석이여
 흐를 츠녜 밀 닷말 굴안
 시아마지 둘 드리고
 시어머니 둘 드리고
 입광 나는 흐 착 썩이여
 질긔집의 도실 낭 싱건
 흐 일이나 도엘인 웃다
 노픈 낭게 에여쁜 열매
 본디 아니 열지도 말라²¹⁾

20)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여성 노동요를 중심으로』(동국대 박사논문, 1982).

21) 맷돌 노래 자료는 1979년 4월 8일 김녕리에서 조사한 것이다. 조사자는 김영돈·현용준이며, 제보자는 양승옥(여·61세), 허군이(여·75) 할머니 두 분이였다. 『한국 구비문학 대계』 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213~246.

‘ㄱ레’는 멧돌을 말한다. ‘지남석’은 자석이니, 멧돌이 자석처럼 딱 붙어 있어서 그만큼 노동이 힘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멧돌을 갈아야 곡식을 쪼개, 불 밝을 때에 저녁을 지어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섯을 지어 시아버지께 돌, 시어머니께 돌 드리고 나면, 남편과 자기는 하나를 둘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도실 낭’은 복숭아 나무를 말하는데, 길가 집 나무에 복숭아가 열려도, 자신을 위해 먹어 보라고 하거나 도와 주는 이들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차피 먹지 못하는 열매니 차라리 열리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노래다.

이여 방이 고들 배 지영
 즈냐이나 붉은 때 흐라
 가시 오름 강당장 집의
 식콜 방이 새글러 서라
 전성 곳인 요 내 몸 가난
 요 슷콜로도 새맛아 서라²²⁾

방아 노래는 멧돌 노래와 더불어서 제주도 노동요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아 노래와 멧돌 노래는 그 사설이 서로 넘나 드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 가락은 달라서 방아 노래의 속도가 더 빠르다. 방아로 곡식을 쪼개 불 밝을 때 저녁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멧돌 노래와 공통된 내용이다. ‘강당장’은 제주도 구석구석까지 알려질 만큼 이름난 부자였다고 한다. 그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결국 중의 폐임에 빠져 망하게 되었다. ‘새글러’나 ‘새맛아’라는 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이 조화롭지 않게 되고 어긋난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 화자가 말하고자

22) 방아 노래 자료는 1979년 4월 8일 김녕리에서 조사한 것이다. 조사자는 김영돈·현용준이며, 제보자는 양승옥(여·61세), 허군이(여·75) 할머니 두 분이였다. 『한국 구비문학 대계』 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213~246.

하는 바는, 부자였던 강당장이 결국 망해 갔듯이 前生이 꾀은 자신의 가난한 인생도 어긋났으면 하는 바람, 즉 가난으로 표상되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제주 잠수 다시 말해서, 제주 여성들의 가슴에는 생활의 힘겨움으로 인한恨이 매우 골깊게 묻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생관이 밝을 리가 없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인 민요 역시 한탄, 자조, 체념 등 어둡고 구슬픈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정신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체념적이고 한탄적 노래에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진취적이고 강인한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설움과 힘겨움을 고려하지 못하고, 드러난 모습만을 ‘신화화’한다면 그 역시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만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적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주의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거꾸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

4. 결 론

여기서 서둘러 결론을 맺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짧고 제약된 논문에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의 부족한 지식과 고찰로 온전히 설명해 내기에는, 제주 잠수 그리고 제주 여성, 나아가 한국 여성의 문제가 너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 무가의 대표적인 여성(신)인 ‘자청비’나 ‘가문장아기’의 성격 고찰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진취적이고 강인한 제주 여성의 모습을 찾아내고, 이를 강조했던 필자로서,²³⁾ 민요에 나타나는 제주 잠수들의 현실적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다소 이

23) 한창훈, 앞의 논문과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민속학회, 1998)을 참고할 것.

올바른 논의과정에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민요에 나타나는 제주 잠수의 모습이 진취적이고 강인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강인함 이면에 존재하는 힘겨운 삶과 시대의 무게를 먼저 읽어내야 한다고 본다. 무가보다는 민요가 더 실제생활과 밀착되어 있으며, 이 점이 곧 두 문학 갈래 사이의 차이이기도 하다. 민요를 통해서 본 제주 잠수의 삶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상상 하듯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이들은 물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험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직업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무가에 형상화되어 있는 여성(신)은 이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민요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삶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들에 형상화되는 제주 잠수의 모습이 근면하고 진취적이고 강인하다 하더라도, 그 의미의 실질은 구분되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여성들의 가슴에는 한이 매우 골깊게 묻혀 있으므로, 그들의 민요 역시 어둡고 구슬픈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정신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다. 때문에 진취적이고 강인한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설움과 힘겨움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만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주의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80년대 이후, ‘전통의 재창조’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커지면서 제주 잠수에 대한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재창조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 잠수는 제주섬의 뿌리이며 ‘이어도’의 꿈으로서, ‘성실의 표상’, ‘저항·항쟁 정신의 표상’으로서 떠받들리고 있다. 제주 잠수의 ‘전세계적인 본보기로서의 근면성’, ‘숙명적이고 무의식적인 검소’, ‘자력으로 늙을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립 정신’ 등이 강조되고 교육되던 1960년대를 떠올릴만 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착잡하다. 더구나 진지한 학문적 성과들도, 그 과정은 무시되고 필요한 결

과만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착잡함을 넘어서 학문에 종사하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필자는 여성주의(=페미니즘)이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실현해야 하는 목적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산출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희망적 증거를 그대로 '신화화'하는 것 또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전망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대상을 현실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운동성도 정확한 현실 분석이 전제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